

사설

또 횡령사고... 왜일까

조계사 신협에서 70억대의 금융사 고가 터졌다. 그것도 부실운영에 의한 것이 아니고 유용과 횡령에 의한 것이다.

신협이 제도를 운영해 오는 듯한 양상도 있었음을 반성해야 한다. 출세간의 법 위에서 있기에 세간법을 더더욱 청정하고도 엄밀하게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런 사실과 단체 운용을 통해서 보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발탁하여 운영을 맡기며, 철저한 감사를 통해 투명하게 시설과 단체를 운영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혹 불미스러운 일에 스님들이 연관되어 승단의 위상에 먹칠을 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

왜 횡령이라는 사태가 일어났는지 원인을 투명하고 철저히 밝혀야 하며 엄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그 엄정한 조치 자체가 하나의 모범적인 사례가 되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창장과 무욕을 근본으로 삼는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시설과 단체가 왜 이토록 탐욕과 비리에 의한 오욕에 휩싸이고, 그로 말미암아 불교의 이미지까지 훼손하는 사태를 빚는가? 이럴 일이라면 차라리 그러한 시설과 단체를 운영하지 않는 편이 낫다는 말까지 나올 것 같다.

장점 많은 남골시설

한국은 세계 3위인 인구과밀 지역이다. 매년 여의도 크기만한 땅이 죽은 사람의 뒀인 묘지로 변해가고 있다.

남골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여차피 국가 정책도 남골당 육성으로 가지만 미래의 국토환경을 보장할 수 있는 만큼 지역자치단체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

공원묘지나 남골당은 누구든지 언젠가는 가야할 곳이지만,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증축이 대단히 어렵다. 안동 월봉사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러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와 지방행정기관에서는 장묘제도 정착의 확고한 정책을 수립, 과감하게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시행해야 할 것이다.

사자(死者)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한 다면 산 사람의 아파트에만 토지수용이나 전입에 인·허가 내지는 자금 융자의 특혜를 줄 것이 아니라, 남골당 건립은 물론, 장례문화개선에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

경북 안동의 월봉사에서 남골당을 지으려다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주민들의 반대 이유는 "산림이 훼손되고 자연 경관이 파괴된다"는 것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남골당에는 단 1경 시설에 따라 몇 십 구(區)의 유골을 모실 수 있으나, 3경 짜리 분묘를 쓴다해도 1백 구면 300명의 땅이 잠식되므로 국토의 낭비와 자연 훼손이 더 심각할 수 있다.

안동지역 하면 우리 나라 전통 유교문화가 가장 뿌리깊게 남아 있는 지방이지만, 주민들도 국토의 유용성과 진정한 산림 보존과 자연환경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판단해야 한다.

열린마당

흔들리는 어린이포교

조계종 포교원이 전국 128개교 3123명의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7월 27일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이 전체의 65.1%, 종교가진 청소년의 83.7%가 초등학교 때 종교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했다. 주지스님은 어린이들이 절에 와서 시끄럽게 군다며 어린이법회 지원금을 중단, 현재 학부모들이 기부하는 성금으로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실례만 보이도 교계의 어린이포교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 있게 한다.

“법회 꾸준히 열어야”

어린이 포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법사와 교사들의 꾸준한 관심이라고 생각한다. 지난해 7월 어린이법회 지도법사의 소임을 맡을 때만 해도 어린이 포교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어 걱정이 앞섰다.

실제로 지난 1년동안의 법회 활동을 되돌아 보니 특별한 날을 제외하고는 거의 법회를 빠짐없이 열었다. 이 때문인지 지난해 처음 법회를 시작했을 때는 70명이던 어린이들이 1년이 지난 지금 현재는 두 배 가까이 늘어 130명 정도가 꾸준히 법회에 나오고 있다.



은사는 사중화의에서 어린이 법회를 위해 따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어린이들의 수련회비, 교재비, 간식비 등에 사용되고 있어 어린이 포교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법회 활성화의 큰 디딤돌이다. 이렇게 법회에서 편안하게 해주니까 매주 학교 친구들을 함께 데리고 나오는 어린이들이 많아졌다. 비록 절에 다니는 어린이들은 아직 종교에 대한 뚜렷한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법회를 한주만 안 열어도 그 다음주 법회에 참여하는 인원이 20~30명 정도 줄어든 정도로 기복이 심한 편이다.

“종단차원 예산 확보”

한국불교의 기둥이 될 어린이 포교에 대한 중요성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예산 확보 등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종단 후원이 그동안 미비했던 것이 사실이다.

면 예산까지 확보해 법회나 행사를 활성화 시키고, 그렇지 못하면 학부모들의 보조금 등으로 간신히 명맥을 유지해 가고 있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지도교사의 자질문제나 어린이들의 시선을 끌 수 있는 포교 프로그램 개발 부족 등이 지적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오는 10월 포교원은 '어린이교사 불교대학'을 개설할 예정이다. 각 분야별로 어린이 포교 전문가들을 초빙해 상설적으로 지도교사들에게 어린이 법회에 필요한 불교의식 및 불교레크리에이션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시킴으로써 양질의 교사를 양성한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과정을 마친 교사들은 어린이 법회의 운영을 위해 교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편견을 깨고 가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종단차원에서 어린이 포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다. 재정상 어려움이 있겠지만 예산 지원을 통해 종단에서 불교와 접촉된 각종 어린이 문화 행사들을 많이 개최해 새싹 불자들을 포교 현장으로 불러 들여야 할 것이다.

“지도교사 교육 강화”

어린이 수련 프로그램에 참가해 아이들을 지도하며 또 사무실에서 포교 상담을 해주면서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지만 아직까지 어린이 포교에 대한 사활 및 교계의 지원은 열악한 편이다.

교사들에 대한 대응문제도 있었지만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관리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교육은 물론 지도교사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기관 없이 1년에 2~3회 정도의 수련회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에서 아쉬움을 더해 주고 있다.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어린이 포교도 물질적·정신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이런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린이 포교에 깊은 관심을 갖던 지도교사들이 차츰 시간이 흐르면서 지쳐버리고 마는 것이다.

화, 만화, 애니메이션 영상물 등 부수적인 교재 개발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언제부터인가 어린이 불자들은 서점에서 자취를 감추고 버리고 말았다. 어린이 불자들은 간행되는 출판사들이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아 일반 업종으로 전업하거나 잡지들은 적자가 누적돼 폐간되고 만다. 어린이 포교는 불교에 대한 교리를 먼저 강조하는 이전에 그들이 원하고 좋아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내 자연스럽게 불교와 접촉하는 눈높이 포교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회정각회장을 놓고 민주당 연동회와 한나라당 불자회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 연동회장인 김기재의원과 한나라당 불자회장 김태호의원측에서 서로 회장을 하겠다고 나섰다. 민주당 연동회는 15대 국회 때 집권여당이 회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 당시 3당 불자회의 합의였다고 상기시켰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불자회는 다수의원이 있는 정당에서 맡는 게 타당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최봉수 교수와 함께하는 경/전/강/좌 기본불교 대강좌(3년과정)
1. 강의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2. 교육장소: 동산교육회관 (안국동 로타리 웅전갤러리 2층)
3. 개강일시: 2000년 9월 7일(목) 오후 4시
4. 모집내용: 주간반 · 통신반
5. 입학금: 100,000원
6. 특 전: 3년과정을 이수한 분에게 홍법사를 수여함

김재일법사와 함께하는 알기쉬운 불교교리 강좌개강
본회에서는 불교를 처음 찾는 분이나 불교기본교리를 알기 쉽게 공부할 제 11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강의개요
1. 강의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가을반)
2. 교육장소: 동산법당(안국동 로타리)
3. 개강일시: 2000년 9월 6일(수) 오후 7시
4. 교과목: 불교의 정의, 불교의 특징, 불교의 분류, 삼보설, 삼과설, 삼법인설, 연기설, 사제설, 수도론, 번뇌론, 반야심경, 불자의 실천덕목, 불교상식 및 사찰예절
5. 지도법사: 김재일 법사
6. 교재: 수강신청자에게 입학당일 제공(불교의 기본교리, 교리노트)
7. 입학금: 30,000원(반명함판 사진2매)
8. 지원자격: 제한없음

송찬우 교수와 함께하는 경/전/강/좌 불교경전 대강좌(3년과정)
1. 강의방법: 통신강좌 (학기당 2강좌)
2. 접수방법: 2000년 8월 1일 ~ 9월 9일(토)
3. 모집내용: 통신반 30명
4. 교육내용: 선택5과목 이상, 필수과목: 능엄경, 대화기별 소집명가
5. 개설강좌: 선택과목: ①금강경 ②반야심경 ③유마경 ④육조단경 ⑤원각경 ⑥대승기신론 ⑦조론 ⑧장자 ⑨대승지관
필수과목: ①능엄경
6. 입학금: 100,000원
7. 특 전: 3년과정을 이수한 분에게 홍법사를 수여함